회원위해 더 힘쓸터

삼성건축 張起仁

이번 총회에서 저의 조그마한 논문을 우수상으로 하여 주신것은 60평생을 지낸 오늘 분에 넘치는 것이라감개무량할따름입니다. 보다 훌륭하고 좋은 작품과 논문들을 쓰신 회원에게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저에게 이처럼 밝고 큰 기쁨을 안겨주신 것은 오로지 여러 회원님들께서 저를 아껴주시고,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면서 보다 많은 일과 더한층 좋은 일을 해보라는 격려와 편달로 알고 쇠잔하여 가는 불꽃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신 것으로 다시금 감사할 따름입니다.

돌이켜 보면 후학·후진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별다른 유산도 없이 한낱 헛되게 지낸 것을 크게 뇌우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잘못으로 가득찬 저에게 과대한 정성과 넘치는 찬사를 보내주시니 더 없는 영광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협회와 여러 회원을 위하여 힘쓸 것을 다져 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건축은 전진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에 계속 주력하여 문화의 창조와 기술의 고도화로서 약진하는 건축의 발판이 되는 것이 우리 건축사의 사명이라 하겠읍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여러 회원과 발맞추어 저도 따를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을 깊이 간직하겠읍니다.

"작품에 대한 책임감 절실"

대우건축연구소 洪淳寅

같은 시기 비슷한 환경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친 우리들 건축풍토에서는 수상작이라 해서 월등하게 뛰어난 작품을 얻기란 그리 흔하지 않다.

이는 현상공모설계에서도 많이 보아왔으며 이를 심사하여 수상작 또는 당선작을 뽑아야 하는 심사위원님들의 고충은 더욱 알만하다.

다음은 지난 10월29일 본회 제16회 정기총회에서 '81협회상을 받은 受賞者들의 수상소감 및 작품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張起仁 / 논문 : 한국주택과 주거생활 □洪淳寅 / 작품 : 임씨주택 □黃一仁/작품 : H씨주택 □金仁錫 / 작품 : 동국대 경주분교사회관 □金孝一 / 작품 : K 씨 태양열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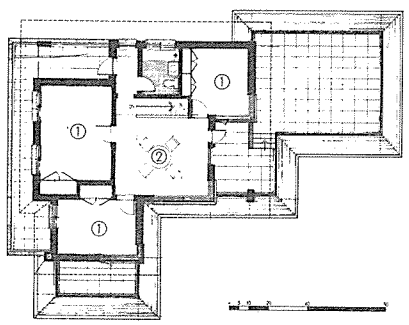
다만 수상작의 경우는 다른 작품보다 많은 작가의 성의와 사용자에 대한 애정의 결과라고 볼수 있으며 필자 역시 그중 한예에 불과하다.

준공이 끝난 지금의 솔직한 느낌은 설계자가 설정한 어떤 구획에 사용자(입주자)의 생활이 구속되지나 않는지? 또는 설계자의 어려운 디테일상의 주문이 설비상 구조상 하자를 안고 있지나 않았는지 항상 염려스럽다. 그리하여 준공후 1 ~2 년후 방문할 기회를 가질때 두려움없이 보람의 시간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시인해야 할 것도 있고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때도 있다.

화려한 작품기록 뒤에는 어려운 과정과 많은 인내가 있어야 하고 좋은 작품은 사용자의 생활과 유리되지 않는 순수한 결정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평소 입버릇 처럼 이야기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사용자에 대한 애정이 좋은 작품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면서도 여기에 더욱 바란다면 당해 입주자(사용자)에 대한 애정 뿐만 아니라 이젠 설계하는 주택의 주변환경 나아가서는 그 마을 그 골목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기존마을 분위기에 유리되지 않은 조형, 기발하고 독창적이 아니라도 좋다. 단위주택 하나하나가 모여 마을 전체와 융화되어 마을마다 골목마다 독특한 분위기의 창출이 우리 설계자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하는 마음이 간절할 뿐이다.

洪淳寅씨 作品「임씨주택」



살만한 환경을 위하여

黃一仁
종합환경연구소 일건

81년도 협회상을 수상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주택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하여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택을 짓는 이유는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로 볼때는 훌륭한 주택이 많지만 이들이 모여서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은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새로이 개발된 지역일 수록 더욱 거칠고 메말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곳에 들어선 집들이 싸구려여서가 아니라 이들이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인 때가 많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가족의 안식처로써보다 교환가치로 더 크게 생각하는듯 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 아니 어쩌면 아무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웃보다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높이는 축대, 요란한 재료, 과장된 장식 - 상품가치를 높이려는 그릇된 생각으로 만드는 이런 장치들이결국은 그 집을 포함한 동네 전체를 정 떨어지게 만들고 맙니다. 애정을 가지고 짓는 집만이 좋은 집이 되고 좋은집 - 비싼집이 아니고 - 이 모여서 만드는 좋은 마을이어야 살만한 환경이 될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좀더 질이 높은 생활환경, 좋은 마을, 자랑스런 도시가 되도록 힘써야 겠읍니다.

審査評

"作品意圖 분명해져"

李延德
고려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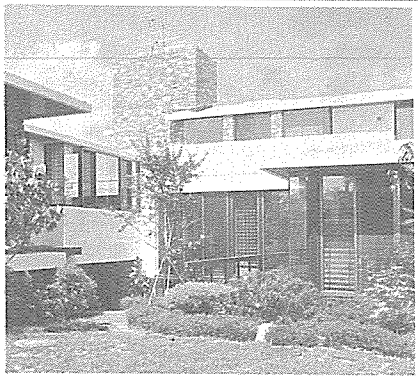
지난 1년 「建築士」誌에 실렸던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였으나 이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대할수가 있었다. 특히 설계作家의 作品意圖가 뚜렷하게 반영된 작품이 전에 비해 많아지고 있음을 특기하고 싶다.

이것은 건축사의 설계방향에 건축주가 순수하게 따라갈 만큼 우리나라 民間文化의 水準이 높아진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좋겠다.

高層사무소·호텔·백화점 등의 작품에서 느껴진 상업주의적 건축은 그 외관은 물론 공간과 구조계획에 이르기까지 獨創性에의 작가적意志가 돋보였고, 대부분의 교회와 일부의 학교에서는 평면과 외관에 대담하고 집요한 창의적意慾을 부각시키고 있다.

住宅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평면이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꽉짜여진 이른바 합리주의적(rational)경향이 짙고 또한 현대적 생활감각에 맞도록 각 방마다 아주 細心한 계획을 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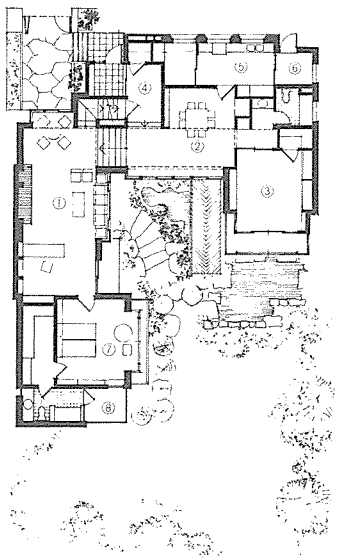
이와같이 좋은 작품들 가운데에서 優劣을 가려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같다. 건축작품은 항상 그 배경적 요인이 건축마다 다르고 건축가의 설계의도도 여러가지의 案으로 「올터네이트」되며 또한 심사하는 사람의 主觀과 시간·장소적 제한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비록 이번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현상설계같은 데에서 응모한 건축사들과 심사위원이 공통적으로 뒷맛을 씁쓸하게 느끼게 되는 원인도 이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건축에서 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하겠다.



많은 참여 바람직

金仁錫
종합환경연구소 일건

뜻하지 않게 "협회상"을 받고보니 기쁘기도 하고 한편 송구한 마음입니다.



黃一仁씨 作品「H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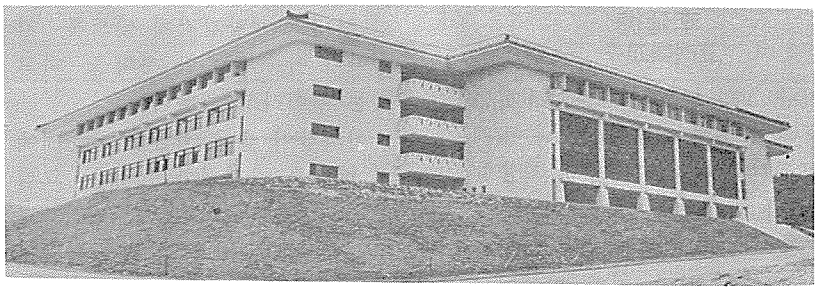
분에 넘치는 영광을 준 협회당국과 심사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유능한 선후배 동료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지는 해마다 발전이 있었고 좋은 회원작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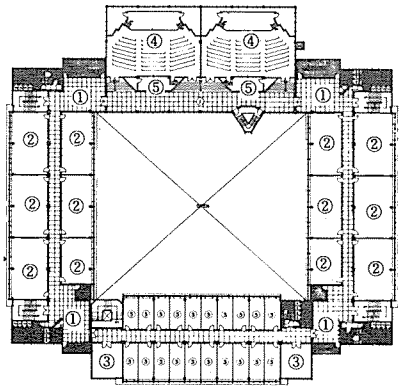
눈에 띄게 많이 소개되고 있읍니다. 매달 받아보는 협회지를 통해 우리는 건축계의 동정을 알 수있고 좋은 설계 자료가 되어주고 우리들 자신의 발전상을 직감 할 수 있어 흐뭇하여 집니다.

아쉬운것은 아직 폭넓은 회원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개되지 않은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협회당국에서는 더 많은 수고가 되겠지만 보다 좋은 자료와 작품을 찾아서 협회지에 소개하므로서 회원전체의 설계활동에 도움이 되고 질의 향상에 매개체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보다 큰 관심과 참여로서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金仁錫씨 作品「동국대 경주 분교사회관」



적극적인 작품평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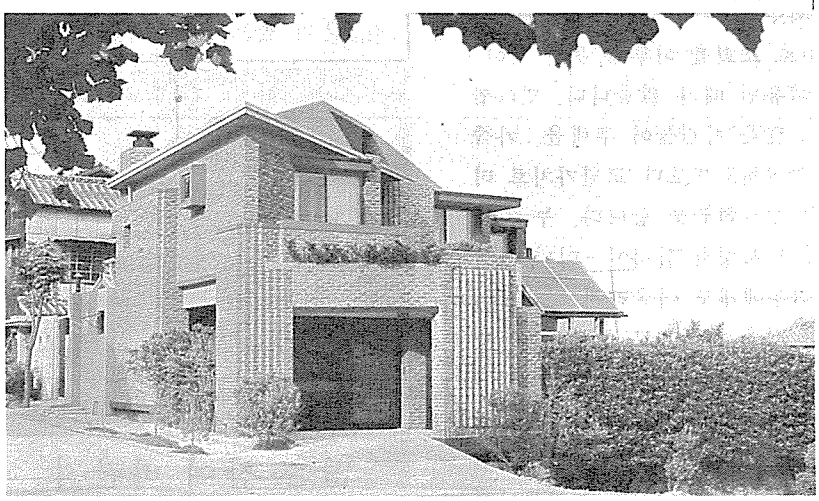
金孝一
원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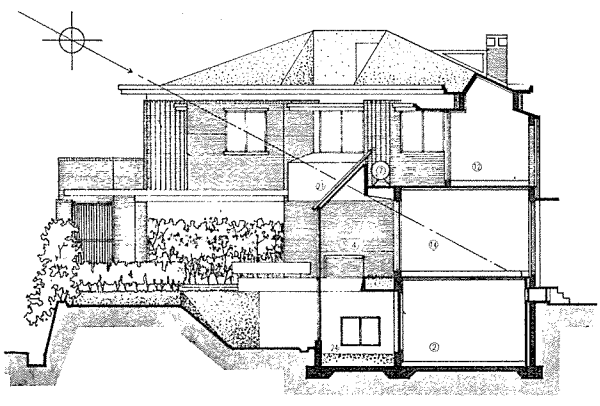
본 협회가 과거 어느때보다 다른 차원에서 시도한 이번 회원작품전과 주택특집 회지발간등 일련의 새로운 변혁은 전국회원들에게 밝은 희망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되며, 이를 과감히 주도한 협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협회상 작품전이 앞으로 더욱 권위있고, 진취적인 발전을 기하려면 연례적인 전시나 시상제도, 평가방법등의 형식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아쉬운 감이 있읍니다.

특히 건축사회원 작품전은 현실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니만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간에 숨겨진 더 큰 교훈을 회원 상호 간에 교류하는데도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時空間과 光의 효과에 따른 대단히 복합적 인 內外部空間의 분위기를 몇장의 사진만으로 한정된 지면을 채워 전시를 위한 기교에만 치중 한다면 실존건물의 본질을 도외시한 기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건이 허용한다면 현지답사에 의한 비평이라든지 보다 다른 각도에서 연구와 보완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협회상작품전이 질적, 양적으로 풍성해지려면, 전국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많은 제약과 부담을 안고 있는 지방회원에게 여유있는 시간적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설계자는 누구나 결코 시상제도에 의한 수상의 자만으로, 충족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金孝一씨 作品
K씨태양열 주택